

현시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 명 철

최근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하여 특히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고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의 무대를 포전으로 옮기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농장원들의 열의와 기세를 돋구어주고 온 농장벌이 알곡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는 농업생산발전의 추동력이며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열의를 발휘할 때만이 농업생산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

현시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농업생산의 장성은 농업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가지고 참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농업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은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사회주의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 때에만 높이 발양된다.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면 농업생산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게 되며 따라서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전변시켜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농민들의 낡은 사상의식이 하루이틀에 사회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될수는 없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강력한 력량인 농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 때만이 농업생산에서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자기 고향과 일터를 사랑하고 보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묵묵히 묻어가는 사회주의 농업근로자로 준비시키며 개인주의, 리기주의, 소소유자적근성을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현실적조건과 농민대중의 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근기있게 벌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시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하는데서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을 실현하는데 국가적투자를 집중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농촌을 책임지고 돌본다고 하여 농촌의 모든 일을 도맡아하거나 농촌사업을 홀시하고 방임상태에 둠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양시킬수 없게 하는 그릇된 편향을 철저히 극복

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빨리 발전시키며 농촌지원의 효과를 보다 높여야 한다. 농촌지원은 농촌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농업협동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도록 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여 협동경리제도의 온갖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한다.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결정적으로 해방하며 그들의 생산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국가적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물질적보장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농촌에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여야 농업근로자들에게 안정되고 좋은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지어줄수 있으며 그들의 생산의욕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현시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그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각성을 높이고 집단생활을 강화하는 매우 훌륭한 형태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주의농촌에서 집단생활의 규모 즉 분조의 규모를 바로 조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집단의 규모를 무작정 크게 하는것은 결코 좋은것이 아니며 집단의 규모를 크게 하지 않으면 집단생활면에서 뒤걸음질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사회주의농촌에서 집단생활의 규모를 적당하게 조직하지 못하면 개인경리에 비한 공동경리의 우월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일군들의 관리수준과 농장원들의 준비정도, 농촌경리의 발전정도에 맞게 농촌에서 집단생활의 규모를 알맞춤하게 조직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분조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모두가 합심하며 일치하게 공동경리발전을 위하여 투쟁할수 있는 규모로 조직되어야 한다. 분조의 규모는 매 농장의 특성과 농촌경리의 발전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수 있다. 보통 분조의 규모는 15~20명정도이지만 토지정리가 잘되고 포전이 넓어지며 기계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농장에서는 분조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더 작게 조직할수도 있다. 이러한 농장들에서는 분조의 규모를 10명이하로 조직할수도 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분조의 생산계획을 주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울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성과 현실성의 요구를 구현하여 정확히 세워야 한다.

분조의 로력과 노동도구, 비료, 비닐박막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것을 정확하게 따져 보지도 않고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그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관적욕망에서 발이 몇정보, 논이 몇정보 있으므로 알곡은 몇t 나온다는 식으로 되는대로 생산계획을 세워 분조에 하달하면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일수 없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실현될수도 없으며 오히려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에 찬물을 끼얹어 농업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땅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땅의 주인인 농장원들이다. 계획일군들은 책상머리에서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분조에 내려가서 농장원들과 담화도 해보고 영농자재의 보장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요구를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알곡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로 정해주어 농업근로자들이 자신심을 가지고 분발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가격공간을 옹계 리용하며 농산물류통체제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보조적수단으로 가치법칙을 정확히 적용하는 문제는 생산자들의 주어진 자각과 생산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사이에 류통되는 생산물에 대하여 가격을 바로 제정하고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철저히 리행하지 못하면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나타날수 없다.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사이에 류통되는 생산물에 대한 류통체제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에서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물자들을 제때에 필요한 량만큼 무조건 분조에까지 보장해주는 엄격한 공급체제를 세워야 한다. 류통환절을 줄이고 간소화함으로써 도중에 농업생산물이 류실되거나 비법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농촌경리에서 생산 및 분배의 기본단위로서의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분조는 사회주의농촌경리에서 생산의 기본단위이다. 그러므로 책임성이 강하고 신망이 높은 사람을 분조장으로 선거하도록 하며 분조성원들을 될수록 고착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분조에 오래 고착시켜야 서로 친숙해지고 성격과 체질, 능력과 수준을 잘 알게 되며 또 그래야 분조장들이 정치사업과 경제사업분공을 더 잘 조직할수 있다. 이와 함께 분조에 토지와 농기계, 부림소도 고착시켜야 한다.

분조장들은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명백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여 분조농장원들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데서 분배를 철저히 사회주의분배원칙대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분배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분조들에서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로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로동과 생산의 결과가 정확히 농장원들에게 차례지게 되면 그들의 자각성과 생산적열의는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현시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는것이다.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는것은 농장원들의 적극성과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협동농장은 농민들의 자원적의사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주의집단경리이므로 민주주의적원칙에 따라 농장원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통제밑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협동농장관리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자면 농장원들속에서 신망이 높고 농장사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수 있는 사람들로 관리위원회를 선거하도록 하며 선거된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농장원들앞에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생산계획과 재정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력의 배치와 조직, 기술 및 설

비관리, 결산분배에 이르는 모든 경영활동에 농장원대중을 널리 참가시켜 그들의 창발적 의견을 듣도록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지도관리기구를 간소화하며 협동농장관리일군들도 모두 분조에 배속시키고 1년동안 벌어야 할 로력일과제와 관리하여야 할 포전도 맡겨준 다음 분배도 철저히 해당 분조의 생산계획수행에 따라서 진행하는 제도를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현실은 농업지도관리기구를 보다 간소화하며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업지도관리기구가 비대해지면 지도기관 일군들속에서 문서놀음이나 하고 필연코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나오게 되며 이렇게 관리일군들이 이신작작하지 않으면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가 떨어지게 된다.

내각과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보장사업을 계획이나 내려보내고 사무실에 앉아 독촉이나 하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언제나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우고 또 그들속에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해설선전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협동농장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추진하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다.

농업부문 일군들은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적소유를 철저히 고수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생산적열의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